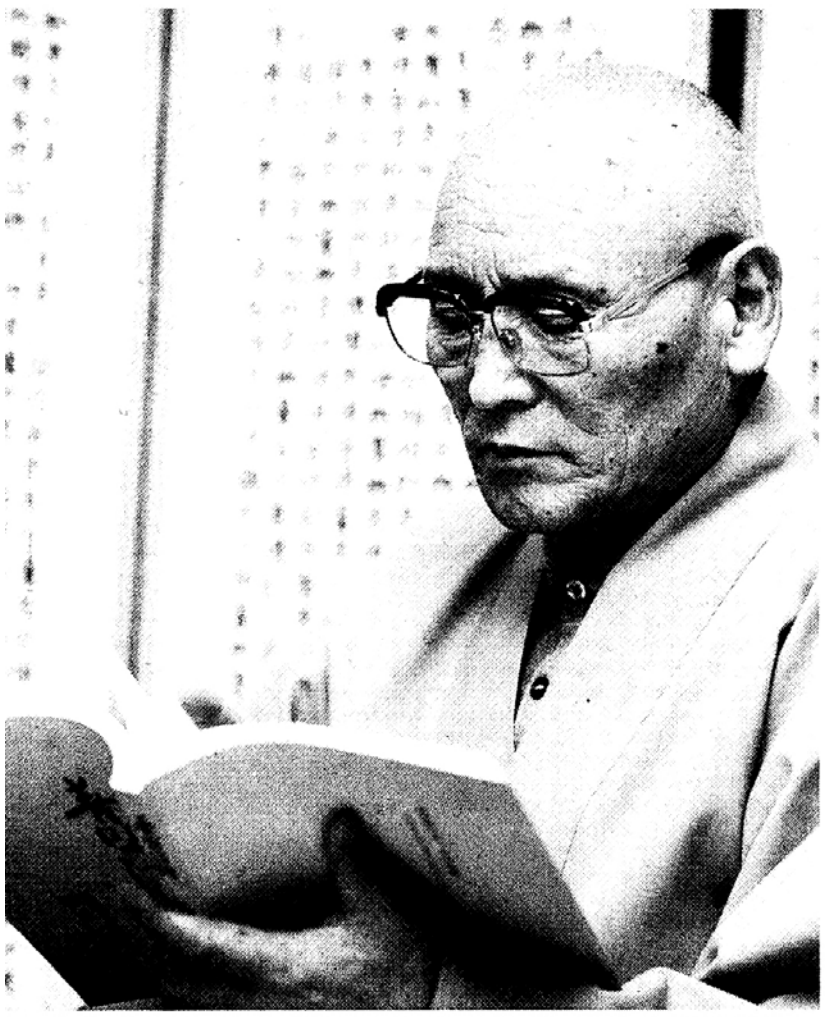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만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강조해온 스님은 지역스님과 지역주민들의 신망이 두텁다.

부처님법은 실천해야만 빛나
육바라밀-수행의 기초·완결

다. 그래야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수행 요체인 '육바라밀'을 끝없이 조했다.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은 실천하지 않면서 남에게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일에 임을 지고 분수와 순리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바라밀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 등 여섯 가지 수행법입니다. '보시'는 괴로움과 망의 근원이 되는 욕심, 욕망, 편견을 버리고 일체 중을 대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베푸는 것 말합니다. 상내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세상 맑게 하는 이치입니다. '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꼭 필요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식욕, 색욕, 재 등의 욕망은 계를 통해 다스리지 않으면 잡초처럼 성해집니다. '인욕'은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닥쳐 참는 것입니다. 남으로 인해 자신에게 힘든 일이 기면 먼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해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해도 풀리고, 그것으로 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조복을 받게 되지요. '정진'은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며 부지런히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하면 원은 저절로 이뤄지지요. '선정'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혜'는 불법을 실천하면 저절로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영원한 생명력과 맑은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초이며 완결인 육바라밀을 실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사회의 모든 악이 저절로 제거되고 세상이 편해집니다. 그러니 꼭들 육바라밀을 실천해보세요"

스님은 항상 신도들이나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살핀다.

"도가 뭔지 압니까. 나와 남을 헤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오로지 남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해보세요. 내 몸 아픈 것은 알면서 남의 몸 아픈 것을 모르면 안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약속 잘 지키고, 남편과 부인 속이지 말고, 돈놀이나 청탁하지 마십시오. 분수를 모르면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에 불타 제 스스로 화살이 되어 죽음의 과녁을 향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욕심을 버리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임을 명심하세요."

스님은 요즘 유행병처럼 번지는 사찰의 불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다.

"요즘 어디를 가나 사찰들이 불사를 합디다. 자꾸 불사를 하면 오히려 중생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도들 다 떠나고 아마 100~200년 지나면 스님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야 스님들을 찾을 수 있겠지요. 불교가 살려면 신도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양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서울 어느 암자를 갔더니 건설회사에서 산을 깍아 절을 위태롭게 해놓았어요. 법당도 거의 무너질 듯 하고요. 그래서 건설회사에 얘기하고 해서 다시 작은 법당이 지어졌어요. 법당 개원법회에 법문하러 갔더니 100여명의 신도들이 아주 송구스러워 하면서 밖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지요. '법당이 크고 작은 것,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 생전에 지어진 죽림정사나 기원정사가 큰줄이 아닌데도 그곳에서 수만명이 성불했다.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이곳에서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밝히는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지요."

우리 마음 깨끗하면
불교·세상·우주가 맑아
항상 마음 관하며 사세요

스님은 기도를 강조하셨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마음의 지혜가 생겨나면 그때는 사회에서 신명나는 일을 하십시오. 일념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진실하게 원하면 무엇이던 얻을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인 게지요. 기도하는 마음이 진정 거룩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들어 수험생 합격기도가 유행이지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나태하게 살다가 대학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은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기도를 통한 요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해야 맞습니다."

스님은 문밖까지 나와 배웅하며 "부처님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은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불교가 깨끗하고, 세상이 깨끗하고, 우주가 깨끗해. 그러니 항상 마음하나만 관하면서 살아요."하고 말했다.

그렇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다.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는 것이 불자의 길이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상묵스님

서산시의 서쪽 끝에 뚝 떨어져서 천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비산 동쪽 자락에 동사(東寺)가 있다. 이 동사에는 10년 가까이 수좌스님 한 분이 홀로 정진하고 계시는데 바로 상묵스님이다. 모든 것이 다 서쪽으로 향하는 서쪽 끝에 자리한 산에다 왜 동쪽을 바라보는 암자를 짓고 동절이라고 이름 붙이게 됐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상묵스님은 이 동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스님이다.

젊은 시절 만공스님께서 경허스님께 찾아가 지도받고 정진하시던 도비산 부석사가 동사 너머 서쪽 중턱에 자리하고, 잠시 산을 오르면 무학대사 깨달음의 인연처인 간월암이 바라다보인다. 조선초와 조선말기의 불교를 이끈 선지식들의 인연이 어린 곳이 도비산이다.

상묵스님이 계신 동사는 명색이 절이지만 인법당과 붙어있는 요사채 한 동이 있을 뿐 거의 토굴에 다름아니다. 공양주도 없이 혼자 끼니를 해결하고, 한번씩 찾아뵈면 그저 묵묵히 앉아 정



진하고 계시다가 손님을 맞아 즐거이 차를 다려 주시곤 한다.

몇 년전 본사의 소임을 살 때 말사 감사가 있어 처음으로 동사로 스님을 찾아갔다. 비포장 길로 한참을 털털거리며 가서 차에서 내려 가파른 산길을 걸어 10여분을 더 올라가야 했다. 미리 전화로 연락을 드렸지만 법당참배를 마치고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혹 스님이 외출하셨나 싶어 방문을 여니 스님은 가만히 앉아 선정에 들어 있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따로 별 말이 떠오르지 않아 "스님, 감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기다리니 스님께서 눈을 뜨고 일어나시며 부시시 웃으셨다.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필요한 일을 챙기고는 "스님, 저희 오는 것 모르셨습니까?" 물으니 "알았지"하시기에 "그럼 왜 대답도 없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니 "아, 수좌가 정진하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감사지, 별스러울 것 있나?"하시는 것이다. 잠시 대화 중에 "스님,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물으니 "참, 자네 여비 가져온 것 있나? 있으면 여기 좀 놓고 가게, 겨울에 기름값이라도 하게"하시는 것이었다.

상묵스님은 출가 전에 수선회라는 참선모임을 결성하여 열심히 정진하면서 출가의 인연을 익혀서, 수덕사에서 방장스님께 계를 받은 뒤 한시도 쉬지 않고 정진에 몰두해온 만년 수좌다. 실력이 수준급에 있다는 검도수행으로 지금도 짬짬이 건강과 심신을 단련하곤 하시는 스님의 자세는 작은 체구임에도 늘 늠름하고 당당하다. 광대뼈가 드러나도록 마른 얼굴은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눈빛은 늘 깊이가 있으면서 빛이 난다. 잡담과 세간의 잡사에는 관심이 없지만 수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배가 부르도록 차를 따르고 따르며 공부의 바른 길과 잘못된 방법, 옛 스님들의 수행담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온다. 서로 공부를 드러내어 묻고 답해야 비로소 탁마가 되어 모나고 뾰족한 것들이 없어지고 수행의 바른 길을 찾게 된다더니, 상묵스님은 누구보다 치밀하고 자상한 탁마의 도반이 되어주시곤 한다.

"직업수좌로 걸망메고 철철이 선방을 돌면서 세월만 보내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해 정진력을 얻지 못하고, 이력만 내세우는 사람은 시주밥을 축내고 업만 지어서 그 과보가 한없이 무거운 거야. 정진을 못하면 기도와 포교를 열심히 하고 봉사라도 하면서 시주 인연에 보답해야지, 머리 깎

함께 공부하기 원하면 늘 환영
수행력·당당함 후학들 의지처

은 것 하나만 자랑으로 삼아서 잘난 체만 하면 신도들도 그렇고 모두 스님들을 존경하지 않게 돼요."

스님은 당신 공부하는 동안에도 누가 찾아와 수행에 대해 묻거나, 함께 머무르며 공부하기를 원하면 늘 흔쾌히 받아주신다. 그래서 가끔 참선수행하는 처사들이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공간이 안 될 것 같은데도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며칠 수련을 하고 가기도 한다. 옛 스님들이 자리가 없어 부뚜막에 웅크리고 자면서 수행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과연 상묵스님의 동사가 그에 버금가는 형편이 아니가 싶다.

몇 해 전엔 수덕사에서 서울에 개설한 무불선원 선원장을 맡아 매주 두번씩 산길을 걸어 시내로 나와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셔서 참선지도를 맡아 주셨다. 처음 완강하게 사양하실 때와는 달리 3년 가까운 세월을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셨다. 스님 계시는 곳은 그곳이 설사 도심의 건물속이라도 바로 선방으로 변하고, 스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자장면을 먹고 난 뒤라도 법담이 이어지는 법석이 되곤 한다.

스님의 늘 변함없는 자신감은 흐트러지지 않게 쌓아온 스님의 수행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실로 당당할 수 있고 그 당당함이 후학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의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머시듈 겨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지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의사(한의사) 박돌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숲,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조원케미컬라이프 Co.
(주)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아침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무릎,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조계사앞 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도 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요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 연 인 -
어느새
가을입니다

한가로히 걸어가는
연인들의 어깨위로

나뭇잎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바스락 거리는
낙엽소리

조용히 밟으며
행복한 미소로

멀어져 가고
바람소리도 함께...

이영숙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大후,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 288-2944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